



광주의 광산업은 자동차·가전과 함께 제조업의 3대 축이면서, 미래를 이룰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7 광주 국제광산업전시회.



전남은 2012 여수엑스포 유치에 계기로 청해전시대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해남 대안조선.

■ 광주·전남 차세대 성장동력은

# 광주 광·디자인, 전남 해양·조선이 살길이다

## 광주

광산업은 이제 자동차·가전과 함께 광주 제조업의 3대 축이면서, 미래를 이룰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로봇·디자인 산업이 가세해 차세대를 향한 발전을 시작했다.

◇광산업=광산업은 올해 매출액 1조원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매출액은 9천444억원으로 지난 2006년 6천393억원에 비해 5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으며, 올 연말이면 1조2천100억원의 매출액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광산업 추진 이전인 1999년 47개에 불과하던 광주 지역의 광산업체는 302개로, 고용인원도 1천900명에서 5천180명, 매출액 1천136억원에서 9천444억원으로 각각 급성장했다.

광주는 아시아 최고 광집적지를 목표로 내년부터 3단계 사업(2009~2012년)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광통신·광정밀·광원(레이저, 초정밀 렌즈), 광소재·광정보기기 등을 집중 육성한다. 3단계가 완료되면 광산업 분야 생산액이 7조1천859억원에 이르면서, 현재 6천명인 고용도 4만8천900명으로 는다.

◇로봇산업=광주는 삼성 광주 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캐리어 등 생활가전 집적지라는 강점을 내세워 '가전로봇 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국·시비 230억원이 투입될 '가전로봇센터'는 가사지원·오락·의료용 로봇 등 각종 로봇산업을 연구·개발 지원하는 핵심 연구시설이 될 전망이다.

'가전로봇 센터' 유치를 계기로 첨단·평

광통신·광정밀 육성 2012년 매출 7조

'가전로봇센터' 조성 2천명 고용 효과

동산단에 가전로봇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전로봇센터가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으로 위협받고 있는 광주 전자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전로봇 센터'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경부터는 로봇 전문업체 100여개가 들어서 생산 1조원, 고용 2천여명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디자인 산업=디자인 산업은 문화수

도 광주의 주요 콘텐츠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광주는 이미 지난 2005년 출범한 '광주디자인 센터'에 1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확충했고, 디자인 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다.

또 주택건축 디자인을 바꾸는 하우징 자체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착수했다. 전통 먹거리인 떡의 고품질화 등 제품 포장 디자인 관련 특히 10개를 출원하는 등 성과도 올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산업 2015년 13조원·5만명 고용

나주·영광·함평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전남의 요즘 화두는 해양·조선과 관광이다. 신재생 에너지도 차세대를 준비하며 비장하고 있는 먹거리다.

◇해양·조선=2012 여수엑스포 유치로 해양은 청해진 시대 이후 천년만에 전남도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 물류와 조선산업의 진정한 메카로 도약하려는 꿈도 영글고 있다.여수는 엑스포를 계기로 국제해양관광리조트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도시개발의 시범모델이 될 것이다. 광양항은 동북아 환적화물 중심지

로서 제3세대형 국제항만인 Tri-port(항만·텔리포트·물류포트)로 방향을 잡았다.

조선산업은 해양을 향해 도약하는 전남 경제의 핵심이다. 전남은 기존의 현대상호중공업(영암) 외에 대한조선(해남), C&중공업, 신안중공업(신안) 등이 잇따라 건설되며 동남권에 이은 제2의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각광받고 있다.

2015년이면 도내 조선업체 매출액이 현재 3조5천억원에서 13조원으로 4배 상승하고, 고용인원도 2만명에

## 전남

연구센터를 설립해 해조류 등 수산자원을 신기술과 접목하는 해양생물산업도 시작했다.

◇관광·문화=전남은 1천965개 섬이 산재한 다도해, 6천419km의 리아스식 해안, 갯벌, 최고 품질의 천일염,FTA 공인 청정해역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과 공통 화석지 등 생태 자원과 남도 소리, 청자도요지, 남도 음식 등 '바닷길이 만든 민족문화 박물관'이기도 하다. 한·중·일 3국의 바다를 잇는 중간에 위치해 동북아 관광 허브를 구축하는 최적지도 된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도내 40여개 섬을 동물·휴양·명상·건강·생태 등 15개 테마로 특성화하는 갤럭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신·재생 에너지=전남은 한전의 나주이전을 계기로 태양광·풍력·조력·바이오에너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할 기회를 맞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148만1천 TOE로 전국의 28.3%를 차지해 전국 1위다. 에너지 총소비량도 전국 1위인 반면 에너지 대체인력 소비량이 전국의 30%에 달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일사장, 최적의 바닷바람과 수심 5~20m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풍력·조력 발전에도 유리하다.

이를 바탕으로 영광, 함평, 나주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 전문가 진단 /

## 호남 성공시대 이끌 '권역별 개발' 급하다



새정부는 '5+2광역경제권 개발'을 구상하면서 '호남광역경제권'으로 광주·전남·북을 하나로 묶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호남성공시대를 위한 '호남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중추거점인 광주권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및 광산업 특구 개발을 목표로 '아시아 문화산

업 특구'와 'R&D 특구' 지정이 시급하다.

전남 동부권은 광양·여수·순천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목표로 광양항을 동북아 환적화물 중심지로 육성하고, 2012 여수 엑스포지구를 '노 비자(No Visa) 해양 관광특구'로 지정해 세계 초유의 '리틀월드'로 조성해야 한다. 서남권은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중계항공 중심지로, 조선산업의 메카로, J프로젝트를

활용한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살려야 한다.

새만금지구는 동북아의 두바이에 걸맞은 세계 경제 자유지대로 조성해야 한다. 또 의료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물식품산업, 문화관광산업, 조선·신소재 산업 등을 호남권의 유망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이건철<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